

01 교회소식

2012 성탄트리 점등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성탄 트리 점등식이 지난 12월 14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

02 생명의 말씀_ 영적인 사랑 시리즈

온전한 사랑

오직 사랑만이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며, 마음을 할례해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만큼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

03 성탄특집

천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도울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 중 천사의 사역을 알아본다.

04 간증

하나님 은혜로 대통령 표창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동작경찰서 경위 양동욱 장로와 무안단물로 딸의 두피피부병이 치료된 페루 히오반나 밴도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561호 2012년 12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2012 성탄트리 점등식’ GCN 방송으로 전 세계 생중계



세상 빛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12만여 개의 전구가 밝혀졌다. 성탄트리가 날로 간소화되는 추세지만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에 큰 의미를 두고 전 성도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성탄트리를 장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2012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 12월 14일 오후 10시, 우리 교회 본당 앞에서 GCN 방송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영상의 날씨 속에 교회 안팎을 가득 메운 수많은 성도가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치자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점화스위치 버튼을 눌렀다. 순간 성탄트리 장식에서 발하는 환한 불빛이 장내를 밝힘과 동시에 연합성가대와 닛시 오케스트라 금관양상블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찬 찬양과 연주가 울려 퍼졌다. 이어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 소리 선교단 김지에 자매의 ‘winter wonderland’ 특송이 있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성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

올해 성탄트리는 디자인선교회와 사론선교회, 시설관리국, 아동주일학교 및 청년·가나안선교회연합회의 수고로 꾸며졌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는 주제로 본당 입구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다섯 꽃잎으로, 교회 입구는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을 LED 전구로 표현했다. 또한 안내실 건물 위에는 대형트리로, 교역자실과 친교실 벽면에는 수만 개의 전구로 급속한 영의 흐름을 타는 성도들을 표현했다.

본당 내부는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천국 연회장을 연상시키는 소품들과 오로라 빛이 나는 트리, 눈 결정체 등이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 주님 사랑이 느껴지도록 꾸몄다. 그 외 2-6성전, 유아실 등도 아름답게 장식했다. 성도들은 성전 곳곳에서 기념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로 오로라 빛 형상들을 촬영하며 은혜를 나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온전한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8~13)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예언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라나 민족,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하려면 소통에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하나이므로 알아듣지 못할 염려가 없고, 선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해나 편견이 없지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배우지만 이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언이나 방언, 지식 등은 영에 속한 것이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할례해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천국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랑

고린도전서 13:11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어둠이나 염려, 근심이 없으며 선과 사랑만 있기에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물론 이 땅에서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믿음의 각 단계를 자녀, 아이, 청년, 아비에 비유했습니다. 자녀나 아이의 믿음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할 힘이 적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믿음이 되고 더 장성해 아비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차원이 달라지지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고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아비의 믿음을 이뤘다 해도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

국에 비하면 역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만큼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무한히 넓고 신비로운 영의 세계와 모든 것이 운행되는 원리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그림자 같기 때문에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지 짐작하게 하는 그림자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지요. 그림자 같은 삶이 지나면 그때에는 실체인 천국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12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기록한 시대는 약 2천 년 전입니다. 당시 거울은 은, 청동, 철 등으로 만들어져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기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세세한 것까지도 뚜렷하게 보고 피부로 느끼며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광대하고 위대하시구나.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3.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소망은 매우 귀한 덕목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가짐으로써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으며 성결하기 위해 힘쓰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3:13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

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과 소망은 인간 경작을 받을 동안 필요한 것일 뿐 천국에는 영적인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진정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장성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사무치도록 밍고 싶지요.

이처럼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좁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힘들다, 괴롭다.” 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 없으며, 소망 역시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행한 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죄를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만큼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고,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으로 처소가 구분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으로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이 곧 사랑이지요.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팔복이 임해 주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소유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원하는 것을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천국은 밟고 다니는 길조차 황금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예비하신 천국 집은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황금과 보석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 값비싼 황금이나 보석은 천국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에 이룬 영적인 사랑입니다.

1. 천국에서도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랑

고린도전서 13:8~10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언이나 방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령한 것인데 왜 천국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영의 세계인 천국은 온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언한다 해도 장차 천국에서 알고 깨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예수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 천사장과 천사의 사역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천사의 세계는 이 땅의 국가 조직처럼 체계적이고, 계급에 따른 정확한 질서 가운데 각각 상관 천사의 명령대로 움직인다.

천사장은 천사의 머리급으로서 이 땅의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로서 모든 분야를 두루 살피며, 하나님 곁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도 드린다. 그 휘하에는 무수한 천사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큰 기도 응답이나 앞일에 대한 계시 등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한다(눅 1:19, 26, 단 9:21~23). 또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장관으로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지휘하며 때로는 직접 나서서 어둠의 진을 깨뜨린다(계 12:7~8, 단 10:13~14).

이 밖에 위험에서 보호하는 천사(단 6:22, 행 12장), 기도 향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는 천사(계 8:3~4), 힘센 천사(계 10:1, 18:21),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삼하 24:16), 천군(시 103:21, 눅 2:13), 하나님 자녀를 수종하는 천사(히 1:14), 하늘에서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실을 기록하는 천사 등도 있다(마 18:10).

◆ 예수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 천사장

누가복음 1:26~38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나온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하자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며 반문한다. 그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요셉과 정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며 하나님 능력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한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사람에게 나타나 직접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성도들을 수종하며 보호하는 천사

영의 세계에서 고유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 자녀를 수종하는 천사도 있다(히 1:14). 이 천사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에만 그 주인을 보호할 수 있는데, 믿음이 성장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사역을 도울 ‘천사’와 ‘그룹’ 곧 영적 존재들이다. 성탄절을 맞아 인간 경작을 돕는 천사의 사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더 크고 능력 있는 천사들이 보호한다.

하나님 자녀를 수종하는 천사들은 주인이 행복하게 찬양하거나 춤을 추면 행복한 표정으로 따라하기도 하고 웃으면 함께 웃는다. 또한 주인이 슬퍼하면 천사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앉아 있기도 한다. 만일 주인이 남의 흉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다면 천사는 하나님 공의에 의해 그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

◆ 성도들의 기도 향을 받아가는 천사

기도할 때에 각 사람마다 그 기도 향을 받아가는 천사가 있다(계 8:3~4).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의 향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천사의 급도 달라진다. 이 기도 향은 윗단에 있는 금향로에 모아지고 급이 높은 천사가 그 금향로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더 급이 높은 천사에게 인계한다. 공중에서 금향로를 인수한 천사는 천국의 기도담당 천사장에게 전달하고 그 천사장이 금향로의 향을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게 된다.

◆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맡아서 그 생각과 마음, 말과 행실을 전부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다. 이어 질서를 좇아 천사장에게 보고하고, 천사장이 서열에 따라 보고하므로 결국 하나님 보좌 금향로에 담겨진다(마 18:10).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감찰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천사의 역할 때문이다.

◆ 사람과 매우 흡사한 천사의 형체(形體)

천사의 형체는 사람과 매우 흡사하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날개가 있다는 것이다(막 16:5, 요 20:12, 행 1:10~11). 천사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성품 및 외모를 갖고 있다. 가령, 군대장관의 역할이라면 남성적인 천사의 모습이며, 춤추고 찬양하는 역할이라면 여성적인 천사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무용하는 천사들 중에 남성적인 천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역할에 따라 성품도 조금씩 달라 찬양이나 무용하는 천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잘 웃으며, 익살스런 표정을 잘 짓는 천사들도 있다. 반면에 경호하는 천사들은 늘 근엄한 표정으로 잘 웃지 않는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 사역자로서 하나님 통치가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뤄지도록 다양하게 돕고 있다.



GCN 방송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2012.12.23~12.29〉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예수그리스도 (성탄절 말씀)
- 일꾼의 자격 1-2
- 창세기 강해 69-73
- 전도 1-2 • 일곱교회 6-10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GCN TV설교

- 사람이 다스려할 몸의행실 7-8 (이수진 목사)
- 내가 시행하리니 1-2 (이수진 목사)
- 진실한 마음 (이미경 목사)
- 민음의 분량대로 (신동초 목사)
- GCN TV특강 십자가의도 3-7(정규영 목사)

성탄절 프로그램

- 2012 성탄트리 점등식
- 성탄축하예배 (생방송)
- 포근한 사랑 (2010 성탄절야공연)
- 기쁜성탄절 (2011 성탄절야공연)
- 우리주님 (2012 성탄절야공연)

GCN 특선영화

- 나사렛 예수 - 2부/3부

12 December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제67회 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아 화제가 된 동작경찰서 양동록 장로. 경찰 재직 26년 만의 일이다. 그는 주님 은혜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고백한다. 그의 간증을 들어본다.

『십자가의 도』를 읽고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

1997년 말, 이웃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인생과 신앙의 대 반전이 있었다. 이전엔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 주색잡기를 좋아했고 욕도 잘하고 교통법규도 다반사로 어겼다. 하지만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를 읽고 신앙생활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궁금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시에 해소됐다.

‘왜 선악과를 두셨고, 왜 선악과를 따 먹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등 의문점이 풀릴 때마다 형언 못할 기쁨이 샘솟았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으니 신앙생활도 180도 달라졌다. 주님 마음을 닮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깨우치고 지난날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다.

오해와 핍박에도 기쁨으로 선을 심었더니

1999년 5월, 우리 교회에 대한 모 방송의 왜곡·편파 보도로 인해 직원들로부터 갖가지 오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 이 일은 우리 교회 성장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과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발단됐다.

그러나 평소 강단에서 설교하신 그대로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당회장님과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얼마 후 경위로 진급해 동작경찰서로 발령이 났는데,

“대통령 표창,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양동록 장로 (2대대 18교구, 동작경찰서 경위)



이곳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면에 귀감이 되신 당회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선을 좇아 행했다.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점차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사라졌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동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 경찰서에서 참된 크리스천은 양동록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물론, 주의 일에 충성하고자 갈급한 심정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무장한 결과, 동작경찰서 교회 회장 사명을 감당하며 경찰 복음화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대통령 표창으로

경찰서 안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대사라는 자부심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매일 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기도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늘 본이 되는 삶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사무실 책상을 닦고 정리정돈을 마친 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또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존칭을 사용하다 보니 말투도 온유하게 바뀌었다. 부하직원의 업무가 밀려있을 때는 대신 감당해 주기도 한다.

민원 담당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대한다. 무거운 짐을 들어 주거나 오르막길에서 리어카를 밀어 주기도 하며 여름에 길 가다가 노인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 드린다. 이러한 행함 하나하나가 결국 대통령 표창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주님 사랑, 목자의 가르침으로 인한 축복임을 다시 한 번 깨우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린다.

“무안단물을 바른 뒤 두피 가려움증과 피고름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히오반나 뻬도 성도 (페루 만민교회)



올해 초, 딸 아나(5세)의 두피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 피고름이 나면서 극심한 가려움증과 통증에 시달려야 했지요. 급기야 상처 부위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지요. 약을 복용해도 피

했지요. 저는 간절히 기도한 뒤 딸의 두피에 무안단물을 발랐습니다. 그 후 기적처럼 피고름이 사라지고 딱지가 앉았지요. 6일이 지난 뒤에는 깨끗해져 탈모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름과 가려움증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루 만민교회 한 성도가 무안단물(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화한 하나님 권능이 담긴 물)을 사용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ભ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